2026년 3/4분기

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026. 6.

부산상공회의소

〈 조사개요 〉

1. 조사명

- 2026년 3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사(※유효 응답 업체 255개사)

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1 2026년 3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

■ **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64'로 전분기(70) 대비 6p 하락,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차질과 고환율,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경기악화 전망**

❍ **2026년 3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64**

- 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(70) 대비 6p 하락하였으며,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, 고환율 등 경기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준값(100)을 크게 하회
- 특히, 원자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산 제조업의 경우, 고환율이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
- 이처럼 개별 기업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내외 리스크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과 수급 차질이 맞물리면서 경기전망 2개 분기 연속 하락

❍ **형태별 BSI는 [1]수출기업 '80', [2]내수기업 '61'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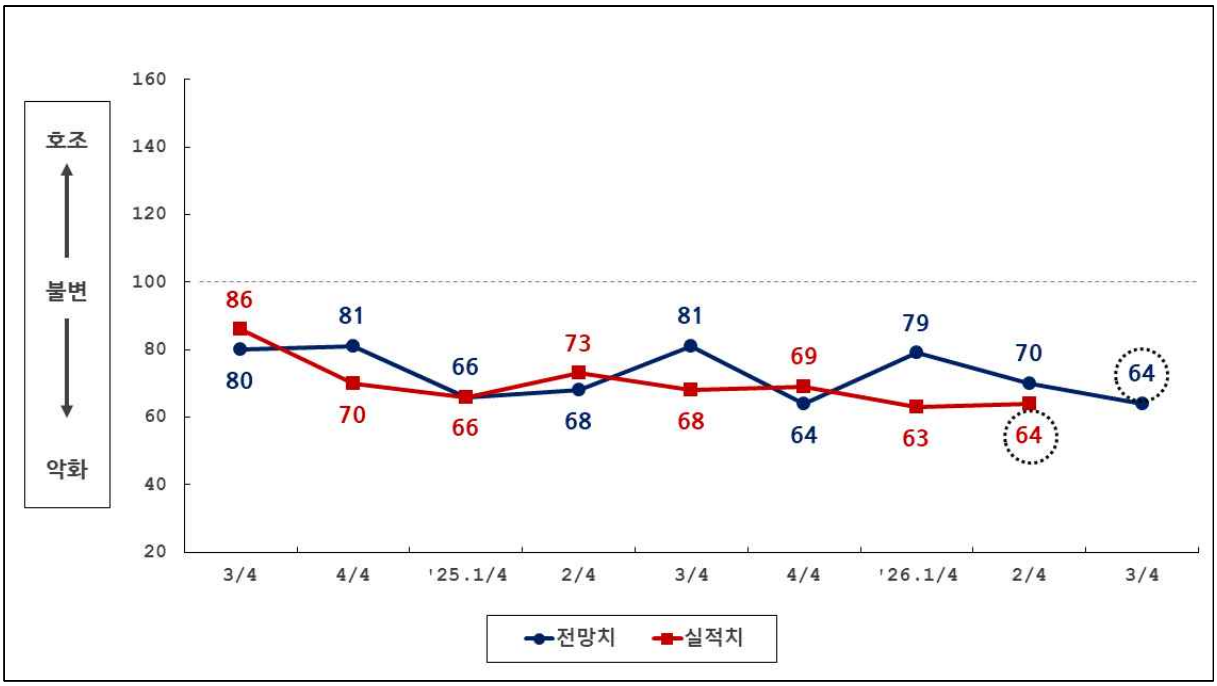
- 수출기업은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대금증가와 전기·전자 및 조선·기자재 업종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(64) 대비 16p 상승
- 내수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, 소비위축 등 중동전쟁의 직·간접 영향으로 인해 전분기(71) 대비 10p 하락

❍ **2026년 2/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'64'**

- 중동전쟁 장기화, 고환율, 소비둔화 등으로 경기실적지수는 전분기(63) 수준

1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기업
2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미만을 차지하는 기업

<최근 2년간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>



❍ 2026년 3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

- 전분기 대비 제조업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제조업체가 140개사(54.9%)로 최다
- 이어서 3/4분기 경기불변 전망 업체는 66개사(25.9%), 경기호전 전망 업체 49개사(19.2%) 순으로 집계

< 2026년 3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49	66	140	255
구성비	19.2	25.9	54.9	100.0

2 경영 부문별 전망

■ 중동사태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2026년 3/4분기 지역 제조업 매출(66) 및 영업이익(63)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5p, 6p 하락

❍ 매출(66), 영업이익(63)

-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·수급 차질 등이 수익성 악화를 야기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 전망
- 또한, 해양운임 지표인 [3]SCFI가 중동전쟁 직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하며 물류비용 부담 가중

❍ 설비투자(64), 자금사정(62)

- 설비투자와 자금사정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매출 감소로 인해 부진 전망

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	전망		
	'26.1/4분기		'26.2/4분기	'26.2/4분기		'26.3/4분기
체감경기	63	→	64	70	→	64
매출액	63	→	66	71	→	66
영업이익	63	→	65	69	→	63
설비투자	63	→	67	68	→	64
자금사정	63	→	65	69	→	62

3)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

3 주요 업종별 전망

■ **중동전쟁, 환율 변동 등 대외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화학·고무 및 화학원료 기반 제품 제조업 등에서 기준치(100)를 크게 하회, 이에 반해 전기·전자, 조선·기자재의 경우 업황 호조로 기준치(100)를 크게 상회**

❍ **화학 · 고무(35)**

- 고유가·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며 원료 조달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, 원료 수급 차질까지 겹치며 이중고 직면
- 또한,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되며 3분기 경기 부정적 전망

❍ **섬유제품(40), 의복·모피(27), 신발제품(20)**

- 화학섬유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불안 및 매입 단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며 업황 부진 전망
- 원자재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 우려
- 신발제품 제조업의 경우, 합성피혁, 합성고무 등 주요 원자재가 석유화학 기반 제품이라 유가상승이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 산업 중 3분기 전망치 최저 수준 기록

❍ **전기 · 전자(154)**

- AI·반도체 관련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호전되며 경기개선 전망. 특히,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따라 관련 부품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치(100)를 큰 폭으로 상회

❍ **조선 · 기자재(119)**

- 노후 선박 교체 수요에 의한 선박건조 수요 증가,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LNG운반선, 암모니아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 확대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 호황 지속
- 조선업 호황에 따라 관련 기자재 수주가 동반 증가하며 3분기 조선·기자재 경기 호전 전망

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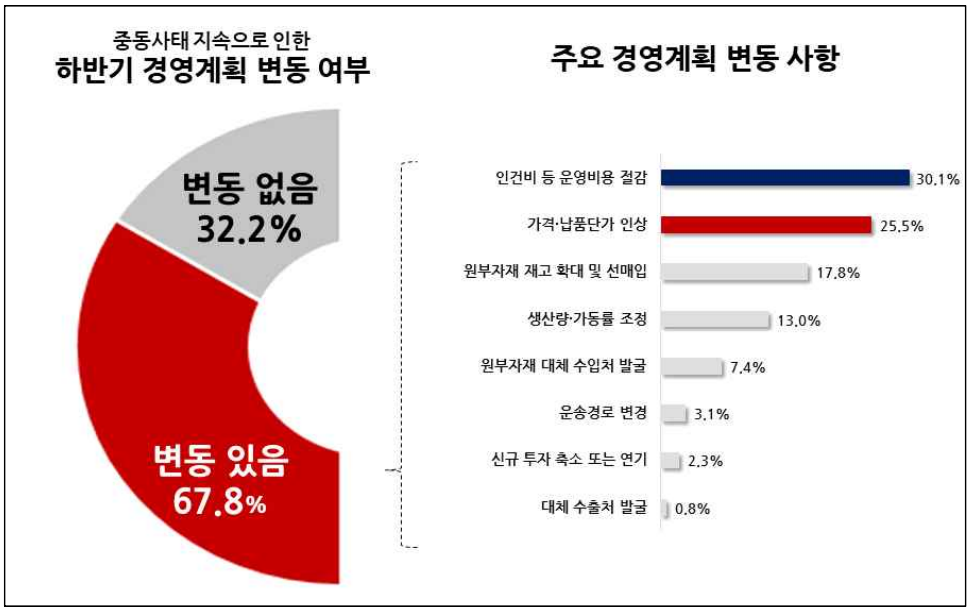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	전망		
	'26.1/4분기		'26.2/4분기	'26.2/4분기		'26.3/4분기
음·식료품	80	→	47	93	→	107
섬유제품	30	→	40	57	→	40
의복·모피	42	→	40	50	→	27
신발제품	50	→	60	50	→	20
화학·고무	74	→	65	70	→	35
1차금속	52	→	72	72	→	72
조립금속	54	→	39	63	→	30
전기·전자	55	→	115	64	→	154
기계·장비	77	→	35	80	→	38
자동차·부품	93	→	86	83	→	89
조선·기자재	77	→	97	83	→	119

4 중동사태 지속에 따른 하반기 경영계획 변동 현황

❍ **중동사태 장기화 여파로 지역기업 과반 이상이 하반기 경영·운영 계획 변동 불가피**

- 중동사태 지속으로 인한 하반기 경영·운영계획 변동 여부에 대해 지역기업은 '변동 있음'(67.8%), '변동 없음'(32.2%)로 응답해 경영계획 변동기업이 약 2배에 달함

❍ **구체적 변동 사항으로는 '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'이 30.1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**

- 이어서 '가격·납품단가 인상'(25.5%), '원부자재 재고 확대 및 선매입'(17.8%), '생산량·가동률 조정'(13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반면, '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'(7.4%), '운송경로 변경'(3.1%), '대체 수출처 발굴'(0.8%) 등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변경하기 어려운 대응책이기 때문

< 중동사태 지속으로 인한 하반기 경영계획 변동 여부 및 주요 변동사항 >